

'94 새내기 여학우 교양학교



주최 : 열린나눔을 지향해
새세대 여성의 입문 실천

제 10 대 자주적 참여학생회

후원 : 구국 명지 제 21 대 총학생회

제 8 대 학생 복지 위원회

차 례

1. 여는 시
2. 행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 총여학생회장 인사말
4. 부총여학생회장 인사말
5. 총여학생회의 사업기조와 내용
6. 선배가 후배에게
7. 새로배움터의 목적과 생활수칙
8. 선배가 한마디씩
9. 복지시설과 휴식공간 소개
10. 아름다운 성과 사랑
11. 피임법과 부작용에 대하여
12. 쉬어가는 페이지
13. 변경된 가족법
14. 당신의 타입은?
15. 만화 (쌀)
16. 주한미국 범죄의 성격과 그 배경
17. 끼있는 여자 (공트)
18. 권장 비디오
19. 함께 하는 노래
20. 도와 주신 분
21. 편집후기

여는 시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에
 용서받는다는 이유로 길들여진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는
 이 시대가 만든 것일 뿐이다.
 너희가 차별당하는 것 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사의 반을
 너희가 배워야 하는 법을
 누가 너희를 인간 이전의 여자로 만들었는지.
 네가 정말로 인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땅의 젊은 여성들이여
 이제 스무살의 어디쯤에 서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

행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언 제 : 1994년 2월 28일 월요일

어 디 서 :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내 소강당

사 회 : 장 미 선 (무역 92)

사전행사

노래배우기

1. 총여학생회장 인사말과 총여학생회 사업소개
2. 총여학생회 집행부 소개
3. 중앙운영위원 인사
4. 대학생활안내
5. 새로배움터 생활수칙과 복지시설 및 휴식공간 이용 안내
6. 문화공연 (민속 예술 연구회 탈터스랑)
7. 초청강연 --- 올바른 성(性)에 관하여
8. 레크레이션과 함께하는 새내기 장기자랑



인사말

- 총여학생회장 양 선 영 (영문 91)

우수가 지나고 봄비가 올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얼 배우게 되는가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91, '92, '93, '94, ... 우와! 벌써 후배를 세 번 씩이나 받는군요. 그 동안 제가 변해온 모습을 가끔씩 생각해 보면 대학이라는 건 정말 넓고, 짧은 4년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94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낍니다. 제가 새내기 91학번이었을 때 한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자기 발로 뛰어 다니면서 얻는 곳이다."라는. 혼자서 많은 노력으로 배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말의 속뜻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속에서 배움이 많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나'를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대학내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친구, 선배들,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한국인이라는 큰 울타리를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좁은 공간 --- 공부만을 접하게 된 반복된 12년의 관계교육---을 벗어나 시야를 넓힐 때가 온 것입니다. 끝없는 세계를 향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 총여학생회 부회장 장 미 선 (무역 92)

올겨울은 몇년만에 닥친 한파로 모두들 움추리고 종종걸음치며 지내 왔습니다.

스팀마저 꺼져버린 싸늘한 명지대 학생회관 5층 총여학생회실... 그 뼈속까지 얼어버릴 듯한 추위를 몰아내주는 봄바람은 94학번 새내기 여학우,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확일화된 제도교육, 지겨운 입시생활, 황당했던 수능능력시험... 지친 여러분께 명지는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든 기회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시간마다 선배들이 여러분 곁에서 항상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모든 것에 도전하십시오! 모든 일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서는, 힘과 정열이 넘치는 94 새내기 여학우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웃음과 용기를 잃지말고 곳곳하게 대학생활을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5층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구인광고 >

어서오세요.

한 가족이 되고 싶으시나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명지의 900 여학우들과 가까워지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군요.

저희 총여학생회는 자신을 개발할 줄 아는 자신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나의 비밀에서부터 명지 여학우들을 책임지는 사업까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뭐죠?!

- 총여학생회의 사업구조와 내용소개

총여학생회는 대학이라는 사회 내에서 구성원인 여학우들의 작고 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들을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학우들은 각자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이해 요구 또한 개별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곳은 수많은 개개인이 모여 이룩한 것이며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집단을 떠나고 집단의 이익에 복무할 때 이기적이지 않은 올바른 사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더불어 '대학'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이전의 유교적,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여져 자라온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자신이 올곧은 사회의 주인으로 서도록 함께 사고하고 얘기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여학우들은 아주 세심하면서도 배려가 깊고 조그마한 것에도 깊은 애정으로 많은 욕구들을 다양한 모임 속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학우들이 자신과 학원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살려 각각 작은 모임에서 출발하여 과 내에서 그 집단의 요구를 하나로 받아 안은 과여학생회로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과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단대 여학생회와 3개 단대의 특성을 모아 내는 총여학생회의 수직적이면서도 한 울타리의 관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다른 문제 못지않게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문제가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성만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차별 등의 문제를 느끼기보다는 남학우와 함께 인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우들에게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선전판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사회 문제들을 얘기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요구를 받아 안지만 간부들만이 이것을 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요구가 강하면 내가 나서서 이뤄내고자 하듯이 학생회 또한 '나'의 발전의 장소로 여겨져야 합니다. 학생회 간부들은 학우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틀을 함께 다져나가기 위해 한발 더 노력을 하고, 변화하는 많은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고층 빌딩의 주인도 많지만 변두리 산동네에서 자녀 가정교육 시킬 틈도 없이 돈버는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런 부모의 손안에서 자라지 못한 해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이 잘자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씩 함께 놀아주며 돌봐주는 활동을 합니다. 아직 제 자리를 잡고 있진 않지만 사랑스런 어린이들의 손을 함께 잡아 줄 94학번 친구들과 함께 탁아부와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배움터내에는 여학생휴게실이 2개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만 쓰여집니다. 좀 더 여학우들에게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애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사업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총여학생회는 명지의 모든 여학우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서로 서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총여학생회실을 찾아주세요. 아직 함께 할 학우들도, 탁아부와 분과원도 많이 많이 모자라니까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학우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94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희의 모토와 함께 여러분도 힘찬 94년 새내기생활을 보내십시오!

열린 네일을 피향하는 세세대 여성의 힘찬 실천!!

살을 찌우세요?!

- 선배가 사랑하는 후배에게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학우 여러분!

명지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3학년이 되는 여러분의 선배이구요. 문헌정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년 전에 저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새내기'라는 생소한 호칭으로 불리우며, 이 곳 명지배움터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고참선배가 되어 94학번을 받는 할머니(?)가 되어 버렸군요.

하지만, 대학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의욕과 열정은 아직도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아니 같았으면 좋겠네요) 전 아직도 새내기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새내기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했던 대학에 대해서 조언 내지는 충고의 한마디를 하라고 하니, 정말로 이젠 '선배'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 재수학원에서 생활했던 사람,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들은 제각기 모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이도 조금씩 틀리고, 물론 생김새도 모두 다르고, 취미도, 특기도 그리고 가치관도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명지'란 이름 하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학우가 낯설고, 어색해도 X알친구(머슴아들이 중요시하는) 버금가는 친구로 남는 사람들이 지금 옆의 학우들입니다. 선배, 후배와의 관계는 어쩌면 두번째 문제일 수 있겠죠. 동기들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확장과 심화는 대학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주 영양가 높은 식품이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요. 가끔보면, 어린애들처럼 단박인 친구 외의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 감정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특히 여학우들이) 자신의 값진 인생경험을 축소시키는 이득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독서를 통한 자기 발전을 중요시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자유스럽죠?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하지만,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솔직히 그리 가깝게 와닿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의 부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커다란 제약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라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딸들을 절대로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우리 여학생들은 바로 옆 남학우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서 침만 꿀꺽 삼켜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야유회전, M.T이전, L.T이전, 또 그날의 모임에서도 통근 때문에 아쉽게 자리를 떠야하는 경우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갈등이 크게 대두될 거예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결코 구데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시다. 곳곳하게 장을 담가 드셨죠. 요즘 우리 여학우들에게 구데기~ 어찌고 하는 논리를 적용시키고, 대학생활 중의 많은 부분들을 제약합니다. 물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데기(?)가 무서워서 정말로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들, 여러분들이 꼭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한다면,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은 대담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책임력있게 행동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드리다면 여러분들을 움아메었던 끈들은 하나씩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값진 시간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학의 상, 대학생의 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요즘은 대학문화가 여러가지 통로로 일반인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좋고,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너무나 기대를 많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꿈, 낭만, 사랑, 정열... 등의 미사어구로써 수식되어지는 대학문화의 상은 치열한 삶을 통해 얻는 보배로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신입생들은 단계를 바꿔 먼저 결과부터 따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얻으려고 해보세요. 결코 슬럼프나, 권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학기가 넘게 대학생활을 하고 나서도 적응을 못하는 학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동기, 친구들도 실, 모두가 주면서 멋진 대학생활을 시작하세요.

요즘 혹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여학우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라는 것이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늘리고 불려야 하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요. 바로 思考의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불릴까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같은 새내기 시절이구요. 살을 찌우세요. 그러나 제대로 찌우셔야 해요.

항상 선배들이 곁에있어 줄 겁니다. 언니처럼, 오빠처럼....

문헌정보학과 92학번 권 동 연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오리엔테이션의 목적과 생활 수칙

여러분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Orientation은 새로운 환경등에 대한 적응·지도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서 말 그대로 새세상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원활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사업이며, 신입생을 학생회의 진정한 주체로 서게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왜곡된 교육 현실과 수동적인 교육 속에서 성장해 온 신입생은 자신의 판단아래서 생활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관제 교육 속에서 대학과 사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신입생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에 의한, 신입생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혼란과 왜곡된 가치관을 스스로 깨우쳐 올바르게 잡아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며,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의 대학인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보적 대학 문화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바깥 세상(?)처럼 제국주의 문화, 저질 퇴폐 문화, 패배주의적 문화가 판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생산적인 문화, 소극적인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스스로가 대학인이 향유할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를 마련해 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대부분의 재학생과 신입생의 첫 만남이기도 합니다. 재학생에게는 신입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선배로서 자신의 역할, 자세에 대한 고민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신입생에게는 이 첫 만남 이후로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오리엔테이션에, 우리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보다 성과있는 만남을 갖기 위한 생활 수칙이 없을 수

없겠지요?

우선,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속스럽고 두렵고 어색해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입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기간 지내왔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들 또는 앞으로 전개될 대학 생활, 갖가지 행사들이 가지는 의의, 전공, 대인관계 -- 자기 학번 친구들과의 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간의 관계 --, 학생운동, 학생회등 의문시 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며, 오리엔테이션 속에서 보여지는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질문해 오는 신입생에 성의껏 대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선배들의 공통된 마음이므로 속스러운 감정들을 앞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학에서의 선후배 관계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안에서의 선후배 관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색함을 치워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대화인 것은 분명하니 가능한 한 함께 입학한 신입생·선배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양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요즘은 자기를 보다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격 차이가 다소 존재하겠지만,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되도록 빠르게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 노래라든지 장기 또는 술 등을 권하는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안하게 한과 동시에 나에게 막을 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지내게 될 선배, 동기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 주고 또 남의 모든 것을 보아 주는 기회로 삼읍시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행동은 삼가합시다.

함께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만치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작은 문제라도 함께 풀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집단 사고를 통해 공동체적 움직임을 지향하도록 합시다.

이 밖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정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을 것입니다. 즐겁고 알찬 시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대학 생활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한마디씩...

여러분! 내게 금지된 것을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여성에게 금지된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바로 지금부터 선배와 함께 행동해 봅시다!!!!

문정 '92 김 수 아

구속은 없애려는 욕망을 가진 자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풀 수 있습니다. 대학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그 기회를 잡는 현명한 여성이 되십시오.

청지 '92 김 명 진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유가 더욱 많이 주어진 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질 수 있는 학우가 되었으면 좋겠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대학생활 누리세요. 그리고 입학을 축하드려요.

정외 '93 최 봉 경

안녕하십니까? 대학에 입학하신 세내기 여학우 여러분!

매우 실례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생활 잘 해 나가시고요, 좋은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노력하십시오.

경영 '93 박 희 정

세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들도 많이 사귀시고, 술자리도 꼬박꼬박 참석해야 멋진 대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행정 '93 이 은 영

안녕하세요? '대학'이란 곳에 발 딛게 된 여학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4년 동안의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인 '여자'보다 능동적인 '여자'가 더욱 생활하기 편하실 거예요.

경제 '93 이 지 수

열심히, 부지런히!

언젠가 어느 선배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우선 뛰어돌고 부딪혀 보라고요.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군요. 무엇이든 부딪히십시오. 그것이 세내기의 특권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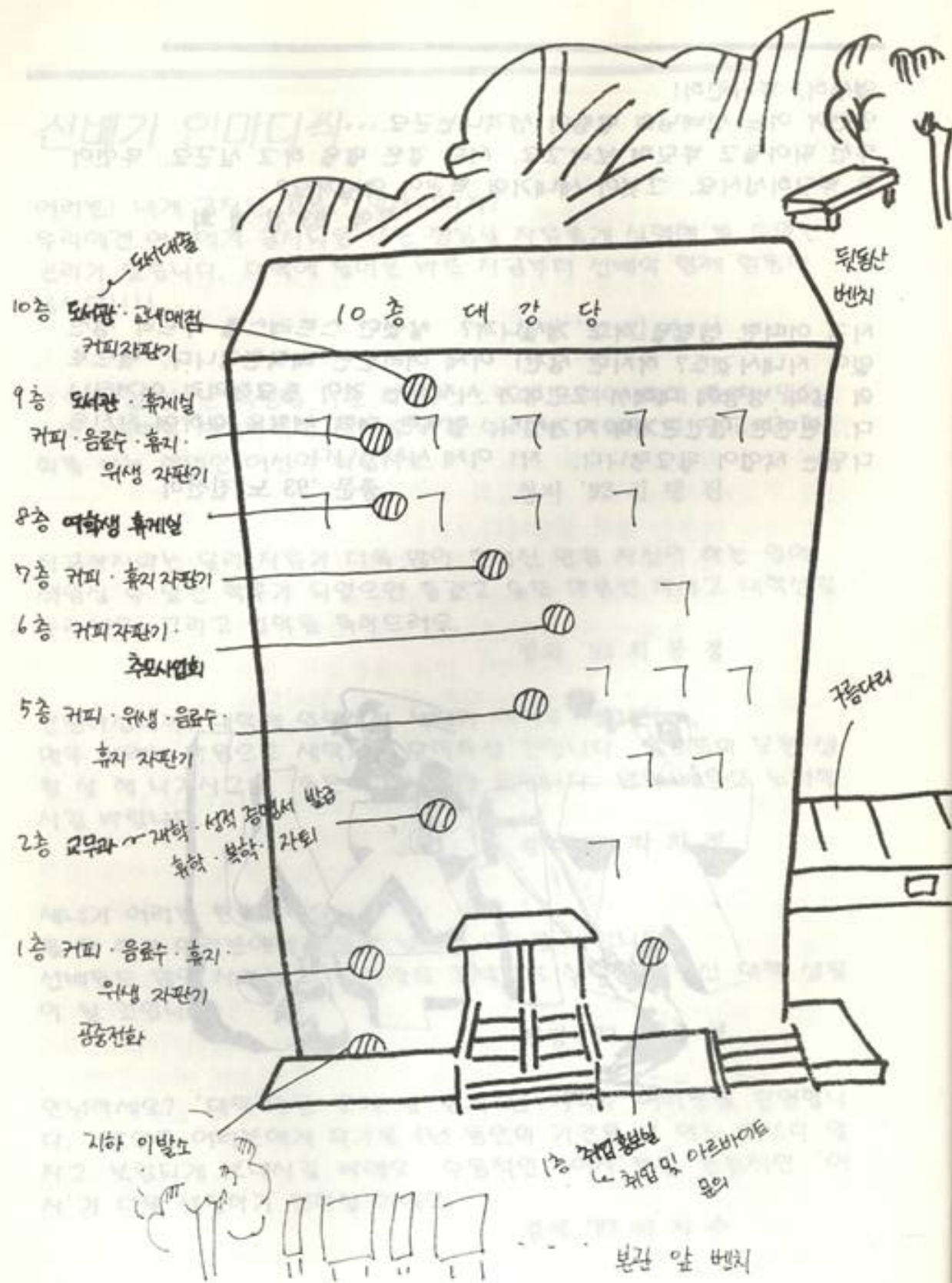
무역 '93 김 정 화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느라 정신 없이 지내시겠죠? 하지만 잠깐! 이제 여러분은 대학인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기성취,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자신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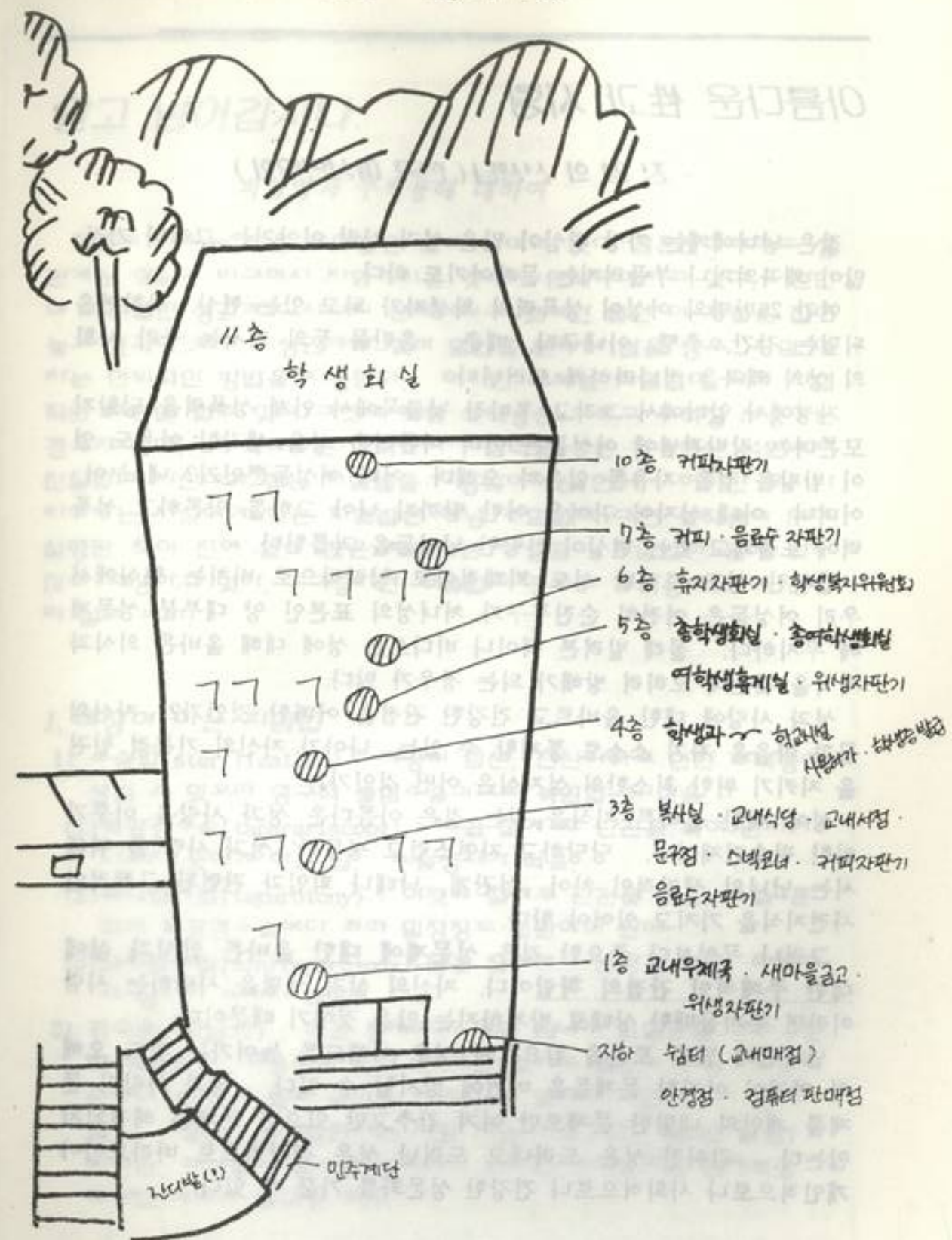
중문 '93 노 진선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복지시설



아름다운性と 사랑

- 정 암 의 선생님(한국여성민우회)

젊은 남녀에게는 가장 관심이 많은 성과 사랑 이야기는 그러나 가장 많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연간 25만명의 여성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현실, 사회면을 뒤덮는 강간, 추행, 아내구타, 매춘, 음란물 등의 기사는 우리 사회의 성의 왜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후미진 뒷골목에서 언제 성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여성들은 이미 아름다운 성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밤길을 걸을 자유를 잃은지 오래다. 어디 여성들뿐인가? 내 누이, 어머니, 아내 심지어 귀여운 어린 딸까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 선량한 남자들을 괴롭힌다.

감춰진 성도 드러난 성도 퇴폐적이고 향락적으로 비치는 현실에서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순진무구가 처녀성의 표본인 양 대부분 성문제에 무지하다. 몰래 빌려본 책이나 비디오는 성에 대해 올바른 의식과 지식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건강한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나아가 자신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성지식은 어떤 것인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필수전제이다.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평등한 '성과 사랑'을 위해서는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 성관계, 낙태나 피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의 확립**이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지몽매한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간에 많은 토론을 함으로써 상호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도 오해와 편견이 야기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성과 사랑의 문제를 개인의 내밀한 문제로만 여겨 감추고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감춰진 성은 드러내고 드러난 성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한 성문화를 가꿀 수 있다.

알고 넘어갑시다.

- 피임법과 부작용에 대하여

지금의 사회는 젊은 세대들은 남녀 사이에 있어 결혼전이라도 성관계는 옛날과 비교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한 성관계도 사회의 문제화되고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접어 놓고 생각해 보자. 성관계에 있어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대부분 피임법에 대해 지엽적인 부분만 알고 있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모르고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찰받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처방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은 커녕 피임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실망된 적이 전혀 없어 많은 피임하는 여성들이 피임법이 몸에 맞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임법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자.

1. 여성이 하는 피임법

- 1) 수술법(sterilization) : 자궁의 임신,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영구적 불임수술이므로 복원할 수 없음.
 - (1)복강경수술(taparariscopy) : 배꼽 밑에 후 난관을 묶어 난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 수술상처가 작음.
 - (2)복식집게법(taparotomy) : 아랫배 밑에 후 난관을 묶음. 수술 흔적이 복강경수술보다 크며 일정정도 입원해야 한다.
 - (3)집식집게법(minilaparotomy) : 배를 집게에서 난관을 묶음. 외부에서 상처가 보이지 않음.
- 2) 경구용 약(pill) : 작은 정제로서 매일 20내지 21일간을 하루 1정씩 복용한다. 호르몬이 높다. 하루만 길러도 임신이 가능. 고호르몬제이기때문에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자연유산이 잦아짐. 고열, 심장질환자는 사망 가능(미국, 1년에 450건 발생)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미네랄제를 함께 복용해야 함. 체중의 불균형 초래.

- 3) 살정제(spermicide) : 약물을 미리 질에 삽입하여 정자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피임법.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크림, 젤리, 파우더 타입이 있음. 1~2시간동안 유효함. 불쾌감을 동반함.
- 4) 자궁내 장치(iud) : 자궁내 링, 루프 등 임신을 막는 기구를 삽입한다. 효율성이 높음.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장치 이후 생리통이 심해지고 월경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며, 간질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음. 염증 동반의 가능성이 많아서 항생제를 함께 복용해야 함. 자궁진공의 가능성이 있음.
- 5) 월경주기법(calendar rhythm method) : 배란기를 피임호르몬으로 임신을 막는 자연 피임방법. 배란시기는 월경을 시작하기 14일전쯤이고 배란된 난자의 수명은 24시간 정도임. 월경을 시작한 날부터 10일이나, 월경 시작 일주일 전은 비교적 안전한 기간.
- 6) 기초체온법(vasal body temperature method) : 질에서 눈을 뜨지 마자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체온을 재는 방법. 배란기 때는 온도가 상승한다는 원리를 이용.
- 7) 자외선조사법(ovulation) : 배란기에 가카와집수룩 질액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질집 많고 깨끗해지며 만져보면 질액이 거린 흰자처럼 질 늘어남. 그러다가 배란기가 지나면 다시 질액은 탁해지고 분비량이 감소함. 이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하면 됨.

* 5, 6, 7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성에게 적용되고 새가지 방법 모두를 병행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리듬을 읽는 것이기에 부작용이 없고 정자가 몸속에서 3~4일 가량 살아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2. 남성이 하는 피임법

- 1) 정관수술(vasectomy) : 상처가 작고 복합염증등 부작용이 극히 드물. 10내지 15회 사정후 피임효과 있음. 자신의 성직중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심리적 갈등 있을 수 있음. 만들어진 정자는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 안으로 흡수됨.
* 정관-정자를 교환해서 페니스로 옮기는 것
- 2) 콘돔(condom) : 성병예방을 할 수 있음
- 3) 질외 사정법(withdrawal) :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정 직전에 페니스를 질에서 빼내어 정액을 질외에 방출하는 방법.

잠깐,

쉬어가기.



새 가족법!! 알아봅시다.

* 악혼

☞ 법적으로 정당한 피혼사유는

1. 악혼자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은 때, 2. 악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악혼자에게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4. 악혼자가 다른 사람과 악혼 또는 혼인한 때, 5. 악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악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7. 악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8.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질병의 사유중 폐병대신 불치의 정신병으로 바꾸었고 생사불명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고쳤다.

* 혼인

☞ 아내가 빈 재산의 소유는

혼인 후 아내가 별에서 산 동산이나 아내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아내의 소유이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수는 물론 아내의 소유이다.

☞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정노동과 가정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 혼인신고 없는 아내의 권리는

혼인신고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성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이혼

☞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혼하면 무조건 아버지에게만 친권이 있고 어머니는 친권자가 될 수 없던 것을 협의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게 고쳤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적당한 사람을 친권자로 정해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번 정한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게 하였다.

* 양자

☞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중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 양자나 양부가 입양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생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 친생자

☞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

* 호주승계

☞ 호주는 누기 되니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호주의 만아들이나 만손자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본인이 원하건 원치않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강제로 호주가 되게 했던 것을 본인이 원치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게 하였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전에는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장손이 차남이나 삼남에 우선하여 호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장손이 있더라도 차남 삼남의 순으로 호주가 되게 하였다.

13 호주외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령 무실하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부양의무, 분가 강제권, 각종 동의권, 청구권 등을 잃었다. 호주에게 더 주던 재산상속상의 특권을 잃었고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상속하게 하였다.

* 재산상속

☞ 지너없이 죽은 딸의 재신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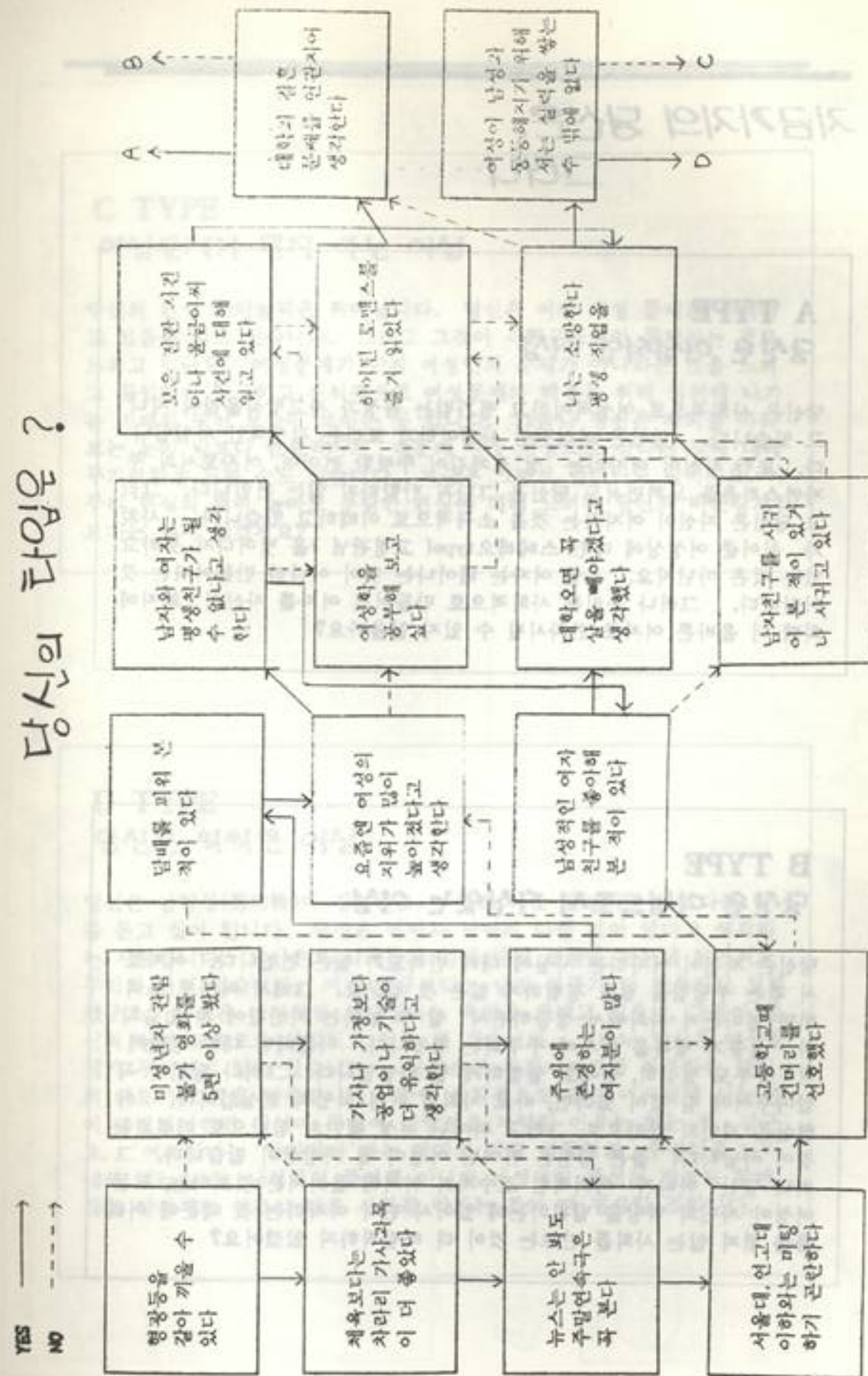
▶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만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 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게 하였다. 즉, 아들, 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도록 고쳤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 유언 및 유류분

※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원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그러나.....

A TYPE

당신은 여성적인 여성

당신은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품성과 사고방식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기 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여자라는 '성' 정체감이 뚜렷한 편이며, 여자로서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당신은 그다지 반항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실어준 여성상에 대한 스테레오 type(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자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더 올바른 여자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B TYPE

당신은 여성으로서 자신있는 여성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자로서 겪는 부당함을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입니다. 이를테면 대학 생활에서 공부도 열심히, 연애도 열렬하게 할 타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회의 여성 억압적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개인의 힘만으로, 그리고 뛰어난 여성 몇만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뛰어난 여성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가 예외적인 소수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보다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C TYPE

여성문제가 뭔지 아는 여성

당신의 현실 파악능력은 뛰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여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도 느끼고 있군요. 여성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진취적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해 나가는 미래의 당신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남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칫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도 부당한 현실에 대해 느끼는 당신의 비분강개함 보다는 높지 않겠지요?

D TYPE

당신은 씩씩한 여성

당신은 남향성(男向性)이 강하군요. '에르다'는 말보다는 멋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여자와 남자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학생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 친구보다는 남자 친구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은 남자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당찬 모습으로 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성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만일 사회적으로 정말 여자답게 사는 것이 긍정적이라면 당신이 구태여 남향성을 지향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평가가 각각 열등함과 우월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회, 남성적인 품성뿐 아니라 여성적인 품성의 장점도 함께 갖춘 양성적인 인간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싸움



주한미군 범죄의 성격과 그 배경

92년 10월 28일 동두천 양공주 윤금씨 살해....

주한미군에 의해 양공주가 살해되거나 중.경상을 입는 사건은 동두천이나 용산, 이태원등지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라거나 경악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은 아무런 죄의식 하나도 없이, 또한 처벌도 없이 이 나라 이 거리를 여전히 활보하면서 지금도 범죄의 대상으로서 조선의 여성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공주의 대한 비난과 편견으로 1년에도 수십 명의 우리 자매들을 死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소위 말하는 '해방군'이라는 미군들이 그렇게도 쉽게 조선의 여성을 유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항의도 없이 쫓그리고 울어야만 하는지 이제 스무살의 문턱에 선 여러분들도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죽음으로 방치되었던 양공주들을 더이상 비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50년이 지나도록 겨누어진 총부리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운명의 군화발을 인천부두의 잔교위에 들여놓았다. 그들은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 제 24군단 병력이었다.

[그 날, '해방군'인 미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물려들었는데 보충에 착검을 한 검은 제복의 일본인 경찰들은 '치안유지'를 위해 발포하였다. 이 총탄에 노조 지도자 권명근(조선노조 인천중앙회 위원장, 47)씨가 가슴과 배에서 피를 뿜으며 죽어갔다. 또 보안대(치안유지를 위해 조선민중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대원이던 청년 이석우(26)씨도 등과 허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이들 두 명이 죽고 10여명이

증상을 입었다. 이들이 죽고 다친 것은 하지가 상륙 전에 일본경찰에게 "모든 환영행사를 금지하라"고 명령한 때문이었다. 환영행사 따윈 필요없다는 뜻이다. 당연했다. 왜냐하면 하지는 한국을 "미국의 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적'에게서 무슨 환영을 받겠는가. 그는 한국인을 일본인과 "같은 종류의 고양이"라고 부르며 사상자를 낸 일본경찰을 두둔하고 '치안유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민중의 역사2, 이성광 지음, 열사람 출판사)

미군은 한국에 첫발을 디디면서부터 피를 물고온 후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67년부터 87년까지 총 39,452건의 미군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에 가담한 미군수는 무려 45,183명에 달했다. (외무부 87년 보고,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과 처리과정') 또한 92년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자료에서는 91년 1월에 주둔군지원협정이 개정된 이후 주한미군 범죄자는 1,197명이었고 그중 9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범죄자는 521명이라고 밝혔다.

즉, 45년 9월 8일 우리 민족의 땅을 해집고 들어온 첫 진주 이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만명이 넘는 미군범죄자가 있었고, 결국 하루에 5명, 일년에 2천명, 지금까지 1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상처를 입어왔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다시없을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91년 개정된 주둔군지원협정의 내용은 하나국정부의 재판권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정후 실제로 재판권이 행사된 경우는 91년 18명, 92년 8월까지 6명에 불과했고, 게다가 그 재판권 행사 경우도 한국정부가 1차적 관할을 주장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주한미군 범죄사'라는 50여년의 역사성을 갖는 사건치고는 너무나 무력하게 처리되어 온 미군범죄는 그야말로 이 땅이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며 살 수 있는' 미군들의 천국임을 증명해 주고있다.

주한 미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적이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하버드대)은 그의 논문 [주한미군 작전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에서 그 '미군의 천국'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군부가 전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회사(子會社)와 같은 양상을 띠고있다. 미정부내에서 의견불일치가 생겼을 때에도 한국문제에 관한 한 군부의 발언은 절대적이다.

세계가 넓다해도 미국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외에는 아무데도 없다.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향락 중에는 몇 천명, 몇 만명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쓰고 있다.

실제로 한국국민이면 누구나 매년 세금을 통해 미군 한사람에게 약 6,2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고있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88년 5월 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특혜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600만 달러나 된다. 그만한 돈의 규모라면,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하루에 평균 25개씩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도산을 막을 수 있고, 3천만원짜리의 아파트를 10만세대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 무상의료보장에 필요한 1조7천3백억원 전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2천7백억원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막대한 액수이다.

미군에게 주어진 특혜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만도 아니다. 앞서 그레고리 핸더슨의 말대로 120여개의 미군기지를 둘러싼 기지촌에서 양공주, 양갈보 등으로 불리는 100만의 매춘여성이 있고 미군이 나이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마음놓고 범할 수 있는 2천만의 한국여성이 있다. 2천만의 여성, 나이가 4천만의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입혀도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자신들을 함부로 벌할 수 없음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군 작전지휘권이 그들 미군에게 있기 때문이다.

역시 핸더슨의 위의 논문은 군작전지휘권을 이양하던 당시를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다. "1950년 7월 15일 서울에서 급히 체결된(차라리 '노획'이란 말이 옳다) 이 협정은 체결과정 자체부터가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분노를 자아내게 할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주한 미사령관을 지냈던 스틸웰장군은 이 협정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묘사했다...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써주었다는 작전이양에 대한 편지는 명백히, 완전히 그리고 모두 미국이 초고를 잡아 준 것이다."

그 때 넘겨진 군작전지휘권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독립된 나라'의 군사작전지휘권이 외국군대에게 있는지는 세계사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남독되지 않는 문제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으로부터 우리민족이 받은 가장 큰 상처인 '식민지국'이 실체이자, 과연 한국 땅이 미군의 천국일 수 밖에 없는 충분조건이 된다.

자격에 미달하는 허수아비 재판관

바로 이 천국을 '군대'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 찾아오는 미군은 그들의 고국 미국땅에서는 살기 어려운 범범자, 불량배들이 대부분이다. 주한미군의 70%는 불량분자들이다.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에서 살 수 없어 한국땅을 찾아온 그들 불량분자들은 자신들은 이 땅의 '점령군'이라는 당연한 자격(?)을 내세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로 한국인을 경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64년 3월 24일 문산역에서의 일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날 미군 3명은 열차를 강제로 세우고 한국인 승객에 대해 강제수색을 하였다. 그때 젊은 한국인이 "주권있는 나라의 국민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미군은 "우리가 원조해 준 것이나 우리 열차다"라고 대꾸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제의 일이 아니다. 아무 이유없이, 또는 사소한 시비끝에, 공연히,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버젓이 상처를 입혀온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점령군'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특권의식과 범죄를 부추키는 '공범'이 바로 우리 정부의 사대적인 자세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범죄 앞에서는 허수아비일 따름이다.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본래 명칭이 '대한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 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로, 이는 1953년 휴전 직전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로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에 다루어져 있는 사항은 협정의 대상인 군대구성의 범위, 기지 및 시설 이용문제, 형사재판권, 출입국관리, 노무조항, 관세 및 통행문제, 보건위생 등이다.

한미행정협정이 불평등한 내용을 두가지 예만 살펴보자.

이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임무는 미군헌병(MP)과 미군범죄 수사단(CID)에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한국여인 첫 강간사건은 46년, 다름아닌 미 헌병 4명에 의한 집단 윤

간이었다. 또 72년, 송탄의 미공군 헌병 윌리엄 로널드는 김모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발가벗고 지내는 변태생활을 하다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으니 옷을 입든지 커튼을 치든지 하라"는 옆집 유계원씨의 항의에 앙심을 품고 유씨집 부엌 물독에 취약을 풀어 일가족을 독살하려고 했다. 미군범죄를 예방한다는 임무를 띤 그들조차 미군범죄자의 한사람일 뿐이었다.

그런가하면 이 협정 22조(주한미군 및 군속과 이들의 가족에 대해 미합중국 자국 법령이 허용한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사건에 대해 합중국 군당국에 포기를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때문에 미군시설 안에서의 체포는 물론, 현행법의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없게 되어있어, 이제까지 한국경찰이 미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본 적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대소 태평양지역 방위가 주한미군 주둔의 1차적인 목적으로 되면서 반공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왔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곧 '때려잡자 김일성'으로 표현되는 '반북' 개념으로 굳어져 소련이 몰락한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의 남침우려라는 또다른 목적으로 강화되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9년 미 국방정보센터의 소장인 진 라로크 전 미해군제독조차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며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남한의 군사력으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결국 막대한 주둔비와 민족적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소련이 몰락하고,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남침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지금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을 돌려받고, 군사작전지휘권 장악을 가능케했던 물리력인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주권을 위협하는 요구일 수 없다. 여전히 반공논리와 전쟁위협을 미끼로 한 안보논리로만 표를 얻어낼 수 있었던 정부의 공공연한 엄포였을 뿐이다. 결국 정권유지를 위한 '필요'로 현재까지 미군의 제국주의적 '충분'을 채워주어 온 사대적인 정부는 미군범죄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미달이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점령군'의 횡포

그렇다면, 안보논리로 미군의 범죄를 묵인해온 정부와 주둔하는 이상 계속될 미군의 범죄를 견제할 주체는 국민 즉 '우리' 밖에 없게 된다.

이제까지 미군의 특권의식과 불량성, 한미행정협정의 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작 미군범죄를 근절할 주체라는 '우리'의 대부분도 주한미군 범죄를 보는데 있어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한미군의 존재자체가 범죄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미군철수는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다음으로, '운이나빠서...'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한 여자...' 등, 당장 내 일이 아니라는 태도로 보여온 무관심이 50년동안 주한미군범죄를 방치해와 끝내는 우리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천만 여성, 4천만 국민 누구든 '점령군'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식민지' 국민의 범주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일제치하라는 서글픈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매춘부인데 뭐...'라는 사회적인 낙인으로 몰시하는 경향의 문제이다. 윤금이씨같은 이들이 양공주가 된 것은 개인의 게으름이 원인인 것도 아니고,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의 1.3%밖에 안된다는 어떤 사람들 즉, 미군정에 의해 일본의 옛 재산을 적산불하 받아 성장해온 지금의 대기업 재벌이나, 일본대신 미군정의 주둔을 이롭게 도우면서 세력을 보장받아온 고위층을 제외한 '우리'들은 하루를 열심히 일해도 매번 오르기만하는 집값, 교육비, 물가에 시달려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전북 순창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윤금이씨는 중학교도 못마치고 16살때부터 봉제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다른 양공주들과 마찬가지로 그 생활고가 너무 극심해 미군 클럽의 여종업원이 되었고 양갈보라는 손가락질까지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구조에서 1.3%의 극소수에는 오르지 못할 '우리'라면 누구나 절대 '예외'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일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행각과 그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적어도 점령군인 미군이나 재판능력이 없는 정부가 아닌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제2, 제3의 윤금이씨가 또다시 1년, 2년...50년... 이어지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윤금이 사건에 대한 동두천주민과 사회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우리민족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관심과 당당한 요구로 보여줄 때입니다.



혼을 하기 전에 정말 그래도 좋은건지 시누이가 소개한 집쟁이에게 물어보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여자가 있었지만 여자는 꽤 진지였다.

집쟁이에게 갔다 돌아온 여자는 풀이 죽어 있었다. 대신 함께 다녀온 시누이는 꽤 당당한 표정이었다. 외기양양한 얼굴로 시누이는 내게 말했다.

"우리 새 언니가 원래 키가 많대요. 기리와 여자가 될 필진대 우리 오빠를 만나 구제를 받은 거래요. 만일 지금 이혼하면 떠돌이 여자가 된단지 뭐대요."

남의 일이었지만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무식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 싶었다. 나는 수돗가에서 말없이 빨래를 하고 있는 주인여자에게 다가가 싶어서 말을 걸었다.

"이혼 수속 자체가 그리 번거로운건 아니대요. 집이면 위치로도 받을 수 있고..."

주인여자는 남편의 속옷을 빨던 손을 멈추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 보았어요...지금 이혼하면 아이들도 뺏기고...빚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게다가 무일푼이 되고 싶겠어요. 파출부가 아니면 공장도 가도 아줌마 일당은 형편없이 적대단대...집쟁이 말이 맞지요. 아마 난 떠돌이 기지가 되겠지요."

나는 넓은 대야에 속옷을 헹구는 그녀의 마디 굵은 손을 말없이 바라보다 슬며시 그자리를 빠져 나갔다. 시스한 부부싸움조차 이 사회의 모순구조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었다.



이런 비디오 보셨어요?!

- 제 10 대 총학생회 추천 여학우 권장 비디오

조이력 클럽

엄마는 내가 관계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지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엄마의 인생을 '엄마'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말고, 한 인간의 인생으로 이해하려 한 적이 있나요?

나이 50이 넘어서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딸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 알려줄만하다고 기대되거나 믿겨지는 친구를 만들었습니까?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자들끼리의 눈물이 펄펄 쏟아질 정도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너무나 과감하고 적극적이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자와 인형같이 사회속에 길들여져 책임질 것도 찾을 권리도 없고 사는 여자의 우정 이야기.

그리고, 그녀들의 옛 이야기에 변화도 무엇도 없는 한 중년여자가 변해갑니다. 그녀는 자기 삶으로부터 모든 수동성을 제거하고, 자신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적과의 동침

편집증에 사로잡힌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던 한 여자가, 그 지긋지긋한 공포의 집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여 끝까지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의 자신을 학대하던 남자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 피고인·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또는 예전에 거리의 여자였다고 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밤늦게 거리를 지나다녔다고 해서, 한 여자가 강간당했을 때, "강간당한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들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는, 강간당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 델마와 루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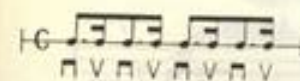
입상을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여행에서 강간을 당할 처지에 놓이고, 살인을 하게되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으며 쫓기는 두 여성의 심리적 변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들은 [살인, 도망, 추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성적 희롱과 폭력, 그리고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와 모순을 거부하고 맞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더이상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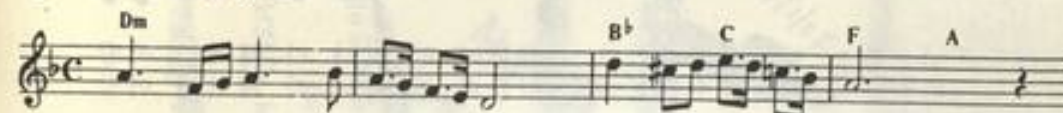
93년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이 영화는 늘 뽀에서 객체가 되어야만 하는 여자의 모습을 거부하고 강열하고 복잡한 삶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관습과 감정의 굴레를 무너뜨리는 여성을 그리고있다. 아름다운 뉴질랜드와 푸른 바다를 그린 영상이 뛰어난, 칸스가 인정한 최초의 여성감독과 내면의 연기가 더욱 돋보이는 홀리 헌터 주연의 영화이다.

함께 부르는 노래

조선은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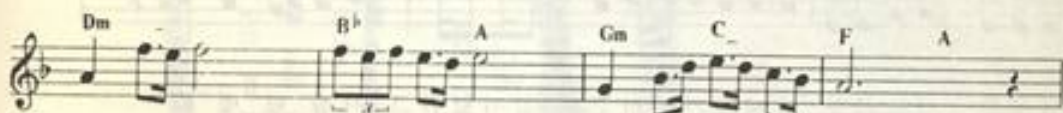
남: C#m 여: Am 합창: 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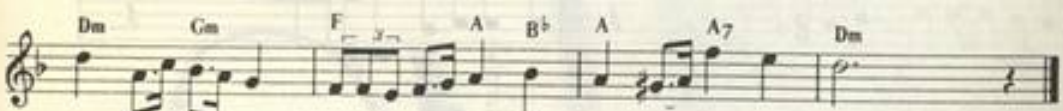
반 만년의 역 사를 이어온 조 선은하나의민 족
슬 기로운 민 족의가슴에 애 국의피가끓는 다



백 두-산 의 정기가이어내려 이 땅은하나의조 국
갈 리-위 진 반도의민중들은 고 통에몸부림친 다



갈 라-저 몇-해더나 해 어저몇-해더 나
통 일이나 분-열이나 역 사의부-름앞 에



거 레어나서라 통일의한길로 조 선 은-하 나 다

딸들아 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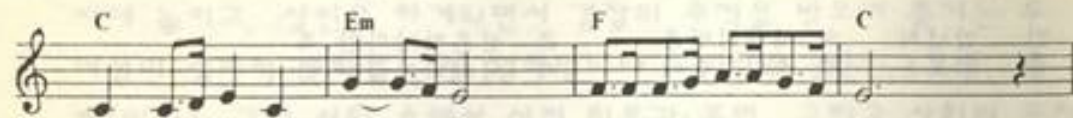
김호철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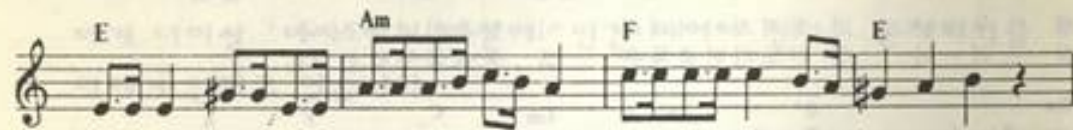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 벽 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 싹 이
2. 우-리는 이 땅의 노 동 자 역-사의 주 인인 노 동 자



게 게 목은 남은 들 - 싹 틔울라 버리고 딸들아 일 어 나 라 깨 어 라 이 땅
더 이상 - 버랑 끝 에 흔들릴 수는 없다 딸들아 일 어 나 라 깨 어 라 이 땅



의 노 동 자 로 태 - 어 나 자 랑 스 런 딸 로 태 어 나



사 랑 도 행 - 복 도 다 빼앗겨 버리고 참아 왔 던 그 시 절 몇 몇 해
고 귀 한 모 성 보 호 다 빼앗겨 버리고 참아 왔 던 그 시 절 몇 몇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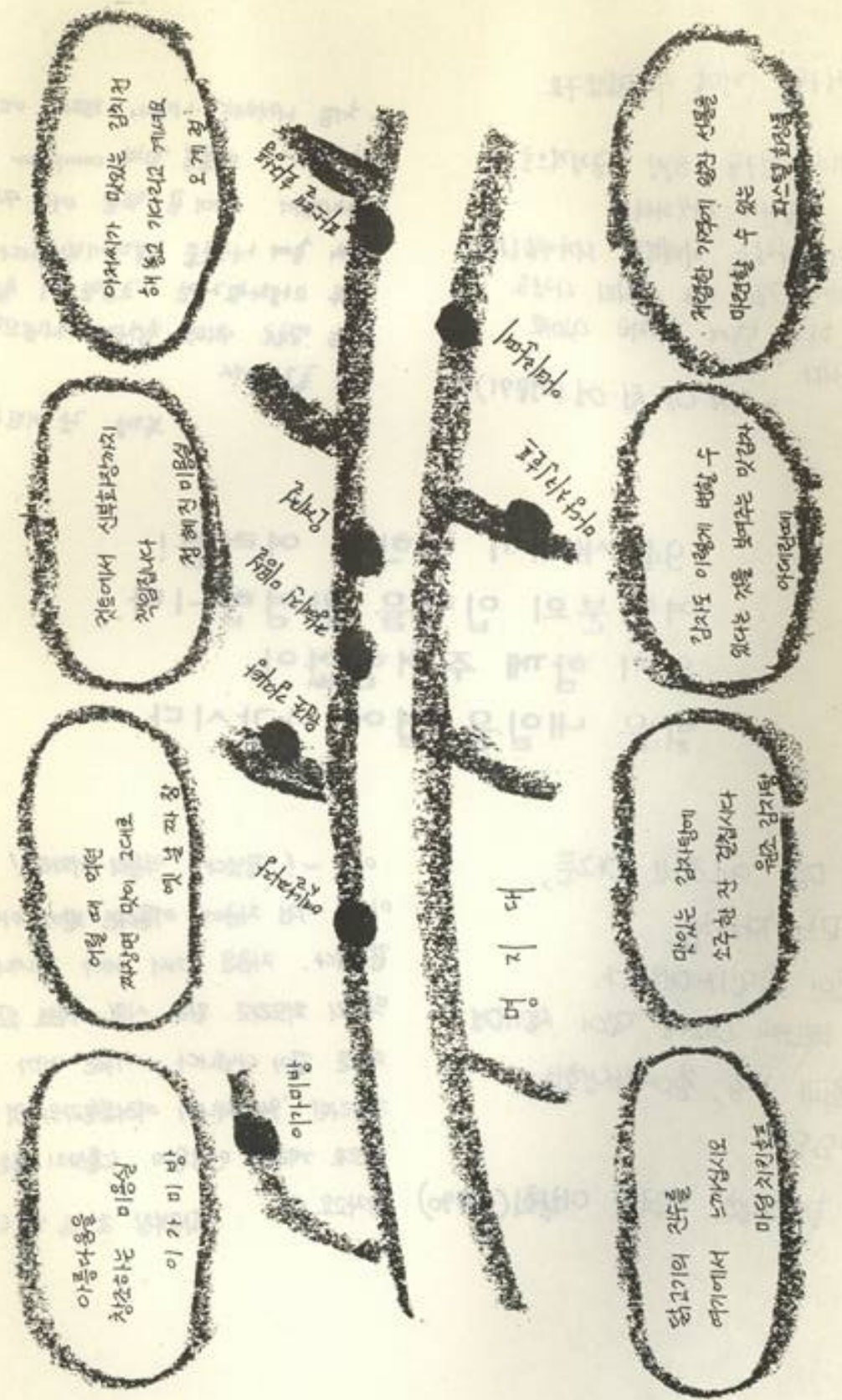


나 가 자 깨 부 수 자 성 차 별 노 동 착취



뭉 치 자 투 쟁 이 다 - - 여 성 해 방 노 동 해 방

<풀꽃 지음장>



우리 식구들 정말 수고 많았구요.

'94 새내기 친구들 항상 긍정적으로,
바쁘게, 툭툭하게 성숙하세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늘 가까이 곁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
여기 작은 방에서 자라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 회장 양 선 영 (영문91) -

처음 시작해본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넘을까? 이쯤을 고백 computer 앞에

바치면서 이제 곧 만날 이쁜 원과

우리 종여 낙구들은 생각해봅니다.

모두 고생하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웃음 얼굴로 94년 힘차게 지냈으면

감동합니다.

- 부장 강 미원 (무영92) -

'94 새내기 여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저함없이
밝은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

예쁜 명지 '94학번 아고들,

무척 무척 자라했.

너희들이 통있! 세대랍니다.

후시, 뽀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상화관 5층, 총여학생회로

찾아오요.

총여학생회 사무국장 이한희 (영문90)

야호 ~! 끝났다, 막걸리 퍼와라!

아니,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지

같습니다. 지금은 요기서 제가 막내니까

막걸리 퍼오라고 강히 시킬 사람도 없거니와,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묵배지게

기다리던 '94 새내기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만남들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고요.

학술부장 조 은 경 (경영93)